

체첸¹ 테러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55분, 한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이 모스크바 지하철 루방카² 역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8시 30분에는 다른 여성이 문화 공원 역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총 39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부상 입고 입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테러범들을 체첸 반군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90년대에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체첸 민족주의 운동을 점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론인들은 테러 공격이 ‘민족주의’적이기보다는 ‘지하드’적이고 ‘이슬람’적이었다는 사실을 경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디미트리 프로코페프³ 마아리브 기사는 체첸의 지하드 주의자들이 중앙 아시아 전역에 테러를 수출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체첸 테러의 90%는 모스크바가 아닌, 다게스탄⁴, 잉구셰치아⁵, 카바르디노-발카리아⁶ 및 체첸 내부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슬람 수장국⁷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테러 조직의 지도자이자 체첸의 빈 라덴으로 알려진 도코 오마로프⁸는 폭파 하루 이후 영상을 공개해, “3월 29일 이교도들을 끌어 버리기 위한 2차에 걸친 특별 작전이 수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인 싸이드 마부리아치야⁹는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위해 싸우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지금 알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테러범들에 대한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푸친 총리는 덜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주: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적 압박에 비견해 보면, 러시아에게 모스크바 근교에 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테러 집단의 요구에 ‘고통스러운’ 양보를 해 평화를 이룰 것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

유월절 전 안식일, 저희는 예슈아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유월절 직후 안식일에는 부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 메시아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행 2:14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행 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Chechen¹
Lubyanka²
Dimitri Prokopev³
Dagestan⁴
Ingushetia⁵
Kabardino-Balkaria⁶
Emirate:Emir 가 다스리는 나라⁷
Doko Omarov⁸
Sayid Maburiatiah⁹

저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생의 복음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토요일 오후, 저희는 예루살렘 정원 무덤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그 자리에 함께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전세계에서 온 손님들,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는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아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이 곳이 확실히 그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 이 고대식 돌 무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대부분의 예배와 교제는 아랍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임 W.이 히브리어로 찬양을 인도했고 오덴 S.가 히브리어로 말씀 몇 구절을 나눴습니다. 교제는 실질적이고 정직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런 차이들은 제쳐 두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연합을 즐겼습니다.

유월절과 아가서

랍비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이 아가서를 쓴 것이 유월절 기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이스라엘에서는 회당마다 아가서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중세 성경 주석가 라쉬¹⁰는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견해를 취했습니다. 이 견해는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그린 것이라는 기독교의 역사적 해석과 평행을 이룹니다(엡 5:32). 자,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케힐라¹¹’라는 히브리적 개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적 개념과 교회라는 기독교적 개념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세계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두 개의 ‘포개진’ 진영입니다. 둘은 서로 병행이며 연합된 것이지만, 구별이 됩니다.

메시아의 몸은 두 개의 진영, 혹은 한 개의 이중 진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6: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솔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 둘 다 사랑하십니다. 둘 다를 향한 엄청난 갈망이 있으십니다. 그 둘을 연결시켜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열정적 사랑에만 비할 수 있음을 봅니다. 느껴집니까?

아 7: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날 참된 영적 신부는 사랑과 순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배와 흠모로 예수아께 사랑을 표합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분의 주 되심에 복종할 때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 32:17 -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가서의 또 다른 주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곧 메시아, 교회, 이스라엘의 사랑은 모두 이스라엘 풍경과 야생의 자연적 측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것이겠지만, 이스라엘 땅을 향한 열정적 사랑은 유대인이나 시온주의자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 62:4 -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불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바가 될 것임이라)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며, 그 둘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 비하고 있습니다.